

## GTX-C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법적 절차를 정상 진행하여 추진 중입니다.

< 보도 내용 (이데일리, 12.26) >

◆ 땅주인 몰래 환기구 설치?...GTX 졸속추진 논란

- GTX-C 청량리역에 환기구를 설치하면서 개인 땅에 동의 없이 설치 진행
- 서울시 측의 개발계획과 국토교통부의 계획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

□ 언론에 보도된 “GTX 건립 사업을 앞당기려고 허가 없이 개인 사유지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”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GTX-C 토지 보상 관련 내용을 공람과 함께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(등기우편)하였습니다.

※ 기사에서 언급된 청량리역 출입구 위치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토지 소유자인 “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”에게 통보 완료(‘23.11)

○ GTX 설계 과정에서 국공유지 활용을 최대한 고려했으나 공공이익 및 설계 상 부득이한 경우 사유지도 일부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,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소유자 협의 등 토지 보상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.

□ 아울러, 서울시 등과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 및 GTX-C 실시계획 관련 내용을 상호 공유 중이며, 향후 GTX-C 청량리역 출입구 설치 과정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인 서울시와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철도국	책임자	팀 장	육인수 (044-201-3963)
	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	담당자	사무관	백정호 (044-201-3983)